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5.10

미 증시, 부채한도 협상과 물가지표 기다리며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부채한도 협상을 기다리며 개별 종목 여파로 하락

•미 증시는 장 마감 후 있을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간 부채한도 관련 회동과 다음날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하며 하락 출발. 여기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인하는 없으며 높은 수준의 물가를 감안 금리인상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점도 부담. 특히 실적 발표 등 개별 기업 이슈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하락을 주도. 다만, 결과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어 하락은 제한된 가운데 종목 장세가 진행되며 제한적인 하락으로 마감(다우 -0.17%, 나스닥 -0.63%, S&P500 -0.46%, 러셀2000 -0.27%)

특징 종목: 전기차, 반도체 관련주 하락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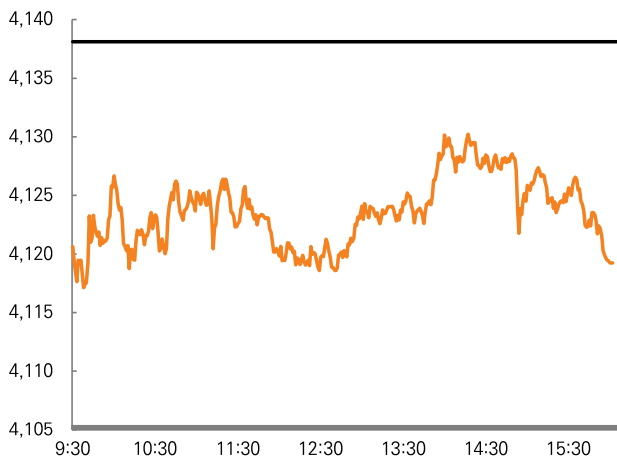
•테슬라(-1.54%)는 자체 배터리 공장 건립 발표에도 중국 4월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3.6% 감소했다는 소식과 여타 전기차 관련 종목 종목들의 약세로 하락. 루시드(-5.58%)는 적자폭이 확대, 니콜라(-13.04%)는 예상보다 낮은 1분기 판매 발표로, 피스커(-7.10%)도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 수소 연료 전지 회사인 플러그 파워(-13.83%)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 애플 부품주 중 하나인 스카이웍스(-5.15%)는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하락. 애플(-0.98%), 퀄컴(-2.35%), 쿼보(-1.09%), 애널로그 디바이시스(-2.66%) 등도 동반 하락.

한국 증시 전망: 불안과 희망사이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0.93%, MSCI 신흥 지수 ETF는 0.6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3.9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0%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부채한도 협상과 소비자물가지수 결과를 기다리며 전기차 관련 종목군과 반도체 업종이 부진(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7%)은 한국 증시에 부담. 여기에 뉴욕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인하가 없고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발언도 부담. 한편,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 없이 결론을 향후로 미뤄 놓게 된다면 불안 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물론, 예상과 달리 합의가 타결된다면 한국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부채한도 불안과 OECD 경기선행지수 반등을 통한 경기 바닥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510.06	-0.13	상해종합	3,357.67	-1.10
KOSDAQ	835.85	-0.76	홍콩항생	19,867.58	-2.12
DOW	33,561.81	-0.17	베트남	1,053.77	+0.03
NASDAQ	12,179.55	-0.63	유로스톡스 50	4,323.09	-0.59
S&P 500	4,119.17	-0.46	영국	7,764.09	-0.18
캐나다	20,585.73	+0.00	독일	15,955.48	+0.02
일본	29,242.82	+1.01	프랑스	7,397.17	-0.5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부채한도 협상 ② 물가와 연준 위원 발언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장 마감 후 부채 한도 관련 회동을 하는데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주식시장 부진 원인으로 작용. 그나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단기적인 조치인데 매카시 하원 의장은 단기 부채 한도 수정을 거부했으며 백악관 또한 이를 반대해 불안 심리를 자극.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민주당은 둘 사이 관련이 없다며 조건 없는 협상 타결을 주장. 무디스는 미국이 디폴트를 맞는 최악의 경우 GDP가 4% 감소하고 60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 피치도 이 경우 미국 국제 등급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발표.

그렇지만, 과거 부채 한도 문제는 항상 협상의 마지막에 급하게 합의되며 종료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도 결국은 타결을 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음. 물론, 2011년 이러한 논쟁의 확대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부침이 있었는데 현재 정치적인 분열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점점 더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이러한 불안 심리는 결국 미국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현재 1개월물 국제 금리가 급등하며 5.5% 가까이 기록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확대. 다만, 주식시장은 과거와 같이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진행.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달 발표된 전년 대비 5.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지난달 물가 하락을 견인했던 가솔린 가격이 4월에는 크게 상승해 시장 전망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물론, 가솔린 가격이 5월 들어서는 지난해 상승했던 것과 달리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5월에는 재차 하락할 수 있기에 4월 지수 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그럼에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견고할 수 있어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이런 가운데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6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같이 올해 금리인하는 없다고 주장해 주식시장 부진을 야기.

장 시작 전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경기에 대해 질서 있게 둔화되고 있어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은행들의 대출 기준 강화는 경제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해 주식시장 장 초반 하락을 제한.

반면, 장중에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고용시장은 견고하지만 냉각되고 있어 연말에는 실업률이 4.0%~4.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기 침체는 기본 예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으며 목표치 2%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준의 행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냈다고 말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6월 금리인상도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올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대체로 매파적인 발언으로 장중 주식시장 하락을 확대하게 만든 요인.



전기차 관련주, 반도체 업종 하락 주도

테슬라(-1.54%)는 자체 배터리 공장 건립 발표에도 중국 4월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3.6% 감소했다는 소식과 여타 전기차 관련 종목 종목들의 약세로 하락. 루시드(-5.58%)는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한 실적발표로 하락. 니콜라(-13.04%)도 예상보다 낮은 1분기 판매 발표 후 급락. 피스커(-7.10%)도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 수소 연료 전지 회사인 플러그 파워(-13.83%)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 다만, 태양광과 EV 충전 시스템용 시스템 공급업체인 솔스 테크(+22.26%)는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과 올해 가이던스 상향 조정으로 급등.

페이팔(-12.73%)은 예상보다 견고한 실적 발표하고 2023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마진 성장 전망에 대해 실망하며 급락. 언더아머(-5.66%)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반면, 노바백스(+27.79%)는 인력 감축과 예상보다 적은 손실, 그리고 코로나-독감 조합 백신 임상 결과가 강력하다는 발표에 한 때 50% 넘게 급등하기도 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 팔란티어(+23.39%)는 AI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급등. C3.AI(+3.38%), 깃랩(+2.88%) 등도 동반 상승.

애플 부품주 중 하나인 스카이웍스(-5.15%)는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장 초반 12%나 급락하기도 했으나 낙폭을 크게 축소하며 하락 마감. 애플(-0.98%), 퀄컴(-2.35%), 쿼콤(-1.09%)등도 동반 하락. 에어비앤비(+1.13%)는 신중한 가이던스 발표 후 시간외 10% 급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55	대형 가치주 ETF (IVE)	-0.36
클린테크 ETF (CTEC)	-1.18	중형 가치주 ETF (IWS)	-0.33
소매업체 ETF (XLY)	-0.03	소형 가치주 ETF (IWN)	-0.36
온라인소매 ETF (EBIZ)	-1.32	대형 성장주 ETF (VUG)	-0.45
미국 인프라 ETF (PAVE)	+0.16	중형 성장주 ETF (IWP)	-0.22
핀테크 ETF (FINX)	-1.08	소형 성장주 ETF (IWO)	-0.2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9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6
클라우드 ETF (CLOU)	-0.42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48
사이버보안 ETF (BUG)	-0.80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42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66	미국 국채 ETF (IEF)	-0.1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33	하이일드 ETF (JNK)	-0.24
바이오섹터 ETF (IBB)	-0.19	신흥국 채권 ETF (EMBD)	-0.05
로봇&AI ETF (BOTZ)	-0.16	물가연동채 ETF (TIP)	-0.15
반도체 ETF (SMH)	-1.54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산업재	840.28	+0.17	-0.19	+1.51
에너지	617.83	+0.04	-0.23	-5.55
경기소비재	1,152.10	+0.02	+0.89	+1.99
유틸리티	348.57	-0.20	+0.55	-1.73
필수소비재	799.50	-0.30	-0.72	+1.53
부동산	232.22	-0.40	+0.75	-0.32
금융	535.49	-0.46	-0.34	+0.69
커뮤니케이션	195.26	-0.52	+0.30	-0.38
헬스케어	1,542.68	-0.69	-0.91	-0.94
IT	2,642.62	-0.85	+0.48	+1.30
소재	495.34	-0.93	-1.34	-1.2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종목 장세 진행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0.93%, MSCI 신흥 지수 ETF는 0.6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3.9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0%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의 부채한도 관련 바이든과 의회 지도부의 회동,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2차 전자 업종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며 하락.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순매수 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에 장 후반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결국 수급 영향이 컸던 KOSPI는 0.13% 하락에 그쳤고, KOSDAQ은 0.76%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부채한도 협상과 소비자물가지수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전기차 관련 종목군이 실적과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크게 하락하고 반도체 업종이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7%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여기에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인하가 없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한편, 한국 시각 오전 5시부터 시작된 바이든과 의회 지도부의 부채 한도 관련 회동에서 합의 없이 결론을 향후로 미뤄 놓게 된다면 불안 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협상은 결국 과거와 같이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까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하기 때문. 물론, 예상과 달리 합의가 타결된다면 한국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한편, 지난 금요일 발표된 4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돼 경기선행지수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부채한도 불안과 경기 바닥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 둔화

미국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0.1이나 예상치인 89.7보다 둔화된 89.0으로 발표돼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미 1개월물 국채 금리 급등

국제유가는 부채 한도 협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수입 감소 등으로 크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미 정부가 전략 비축류 보충 계획이 알려지자 상승 전환에 성공. 더 나아가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며 향후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영향. 이에 힘입어 천연가스, 가솔린 등 여타 에너지 품목이 상승

달러화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더불어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안 심리가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강세 요인. 파운드화는 BOE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보합권 등락.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도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국채금리는 3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55배를 상회한 2.93배를 기록하고 간접 입찰도 60.1%보다 증가한 73.3%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높았으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 특히 1개월물이 5.5% 가까이까지 급등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여기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을 언급한 점도 상승 요인. 다만, 장기물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은 제한.

금은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부채 한도 협상 등 불안 요인을 감안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수입 둔화 등으로 부진. 그러나 철광석은 중국 4월 무역수지에서 철광석 구매가 연간 5.1% 증가해 중국 건설 성수기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급등. 곡물은 미 중부 주요 곡창지에서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밀은 작황 호전으로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4% 상승, 철근은 0.27%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3.71	+0.45	+2.55	Dollar Index	101.648	+0.27	-0.30
브렌트유	77.44	+0.30	+2.55	EUR/USD	1.0962	-0.38	-0.34
천연가스	2.27	+1.12	+2.21	USD/JPY	135.22	+0.09	-0.97
금	2,042.90	+0.45	+0.94	GBP/USD	1.2622	+0.03	+1.24
은	25.90	+0.08	+0.92	USD/CHF	0.8907	+0.13	-0.28
알루미늄	2,320.00	+0.06	-1.53	AUD/USD	0.6763	-0.28	+1.50
전기동	8,591.50	+0.12	-0.05	USD/CAD	1.3385	+0.08	-1.77
아연	2,674.00	-0.47	+1.00	USD/RUB	77.6602	-0.00	-3.06
옥수수	584.75	-1.80	+0.99	USD/BRL	4.9879	-0.44	-1.05
밀	643.50	-1.53	+5.70	USD/CNH	6.9247	+0.07	-0.14
대두	1,414.25	-1.38	+0.23	USD/KRW	1,323.90	+0.19	-1.03
커피	186.50	+1.39	-0.13	USD/KRW NDF1M	1,323.90	+0.29	-1.2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519	+1.14	+9.47	스페인	3.439	+3.50	+11.40
한국	3.320	+0.70	-5.00	포르투갈	3.198	+3.20	+9.80
일본	0.426	+0.80	+0.50	그리스	4.132	+5.80	-6.20
독일	2.350	+3.10	+9.20	이탈리아	4.279	+3.80	+10.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